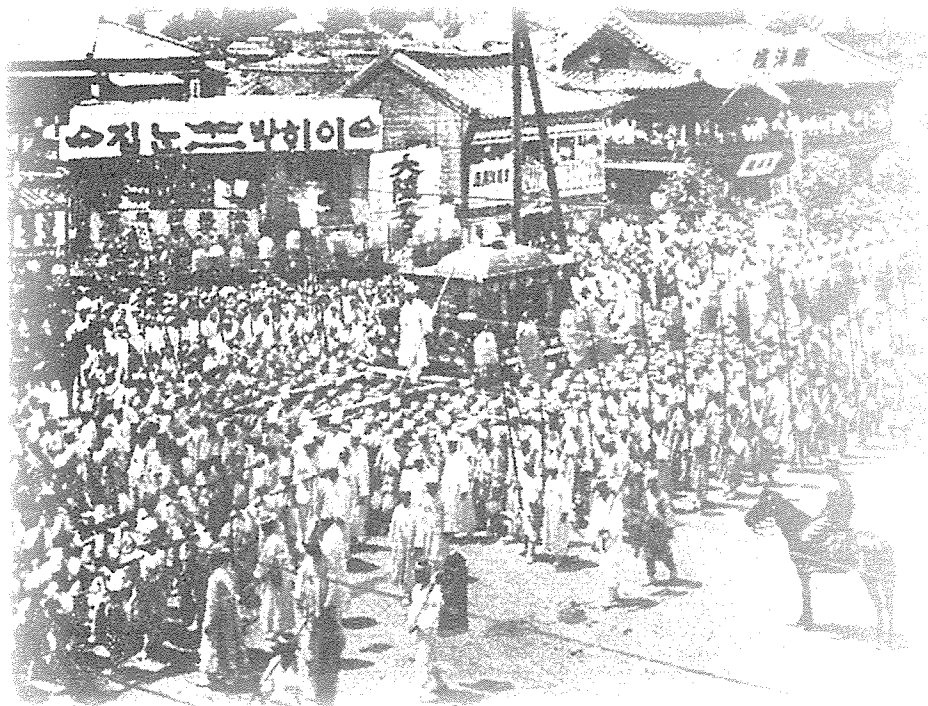


# 세월따라 살펴보는 치과계 풍속도

일본인에 의해 경성치과전문대학이 세워진 후 몇십년이 지난 지금 11개의 치과대학이 생겨났고, 과거에는 많은 무의촌 지역이 존재했지만 이제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한편, 의사는 과잉배출되는 시대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몇십년동안 갑을논박해왔던 치과의사전문외제도 또한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에서는 또 어떤 역사를 남기게 될까. 이 시점에서 과거 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치과계의 산증인을 통해 전반적인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다. <편집자>

취재/안정미 기자



## 50년에서 60년대, 가장 힘겨운 시간

서울치대 3회 졸업생인 유양석 원장은 자신의 세대만큼 격동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수난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세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2차 대전을 겪어야 했고, 조국의 광복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국난을 겪는 등의 시대상은 당시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치대는 부산으로 피난가고 학생은 군대로 징집되는 등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치과대학생들은 대포가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단국치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재현씨는 '부산 피난지에 세워진 서울치대 가교사는 판자집으로 지어져 비바람이나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였고 난방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으며 책상은 고사하고 긴 의자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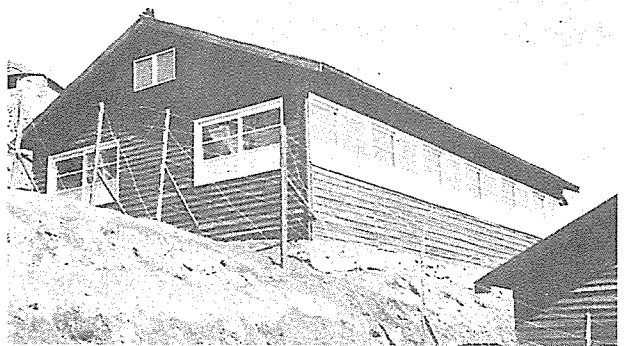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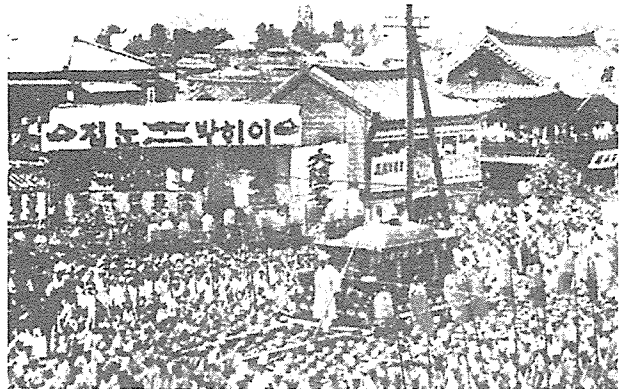
이재현씨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건을 회상한다.

지금과 같이 전임기초교수 하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당시에는 의대교수의 외래강의로 기초교육을 받던 시절이었다. 한 외래교수가 병리학 강의를 하던 중 '너희 공부하기 싫으면 치과의사 면허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나가보라'고 하는 말에 모욕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학생들이 학장을 찾아가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며 전쟁으로 인해 모두의 마음이 피폐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월남에 참여하는 등 전쟁을 경험하고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처참한 상태의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세대들은 70이 넘은 분들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치과의사. 안경 너머로 흑백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아마도 모치과대학의 졸업사진처럼 보인다.

"이 사람은 000야. 지난주에 죽었어. 이 사람은 나랑 친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이 세상에 없지. 애두 나랑 친했는데 없어. 이분은 내 선배야.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상: 고종황제의 장례식 모습으로 당시의 치과 '이해박는 집' 간판이 보인다. (1919. 3. 3. 현재 종로37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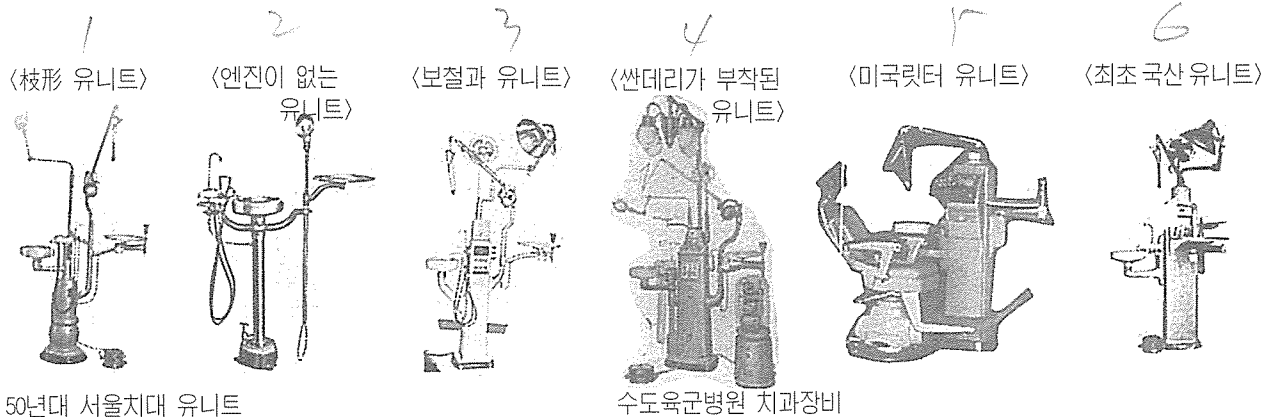
하: 서울치대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했을 당시의 판자집 교사.

데서 개원했거든. 근데 이제는 안 계셔." 신중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젊은 사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지만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스쳐지나가는 것은 지금의 치과계가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애쓰던 모습과 그들의 애착, 그런 것들로 인한 연륜 등이다.

49년에 졸업한 유양석 원장은 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한 암흑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군대에서 모든 것을 배운 만큼 한국의 치의학이 군진 의학을 통해 발전했다고 할 정도로 군진 의학이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60년대에 개원을 한 최옥환 원장도 군의관으로 재직 시 군대에서 상당히 선진화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자신이 진료해준 환자의 금니가 내년이면 30년이 돼 그 환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할 계획이라 말하니 세월 한번 참 빠르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50년대 서울치대 유니트

수도육군병원 치과장비

기자재도 많은 변화 있어,  
풋엔진에서 터빈엔진에 이르기까지

치과계의 기자재도 한국치과계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치대가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서울로 환도한 것이 1954년. 55년에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치협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지광원씨에 따르면 당시에는 전기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는 특선을 끌어 주었지만 그것마저도 때때로 정전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풋엔진을 사용한 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기자재는 급속도로 변화해 풋엔진은 모터엔진으로 자리를 내주었고, 모터엔진은 터빈엔진으로 대체하게 됐다.

40년대부터 사용한 풋엔진은 회전속도가 3백에서 5백 사이였으며 모터엔진을 사용하면서부터 2천회전에서 5천회전이 되었고 60년대에 들어서면서 8천회전에서 1만2천회 정도로 급상승했다고 한다.

한 치과의사는 치과기자재의 변천에 대해 터빈엔진은 과히 치과계의 '혁명'에 비유될만하다고 표현한다.

지광원씨를 통해 한국치과기자재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치대가 서울로 환도한 후 소공동에 위치했던 시절, 서울치대는 5층 건물 중 2층 전부를 부속병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곳에 설치된 치과 유니트는 초코렛 색의 枝型(에다가나)이었고 그나마 구강외과의 유니트는 엔진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사용한 풋엔진은 조수가 발로 밟아 핸드피스 돌아가게 되는

데 밟는 기술이 필요해서 잘 밟아야 핸드피스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어터빈이 미국에서 공급돼 군대 치과에 보급됐으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어터빈 유니트가 소형화되어 브라켓 암(Braket Arm)에 부착하여 쓰게 되었고 곧 유니트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 시기에 모터 엔진이 사라지고 마이크로 모터가 되어 핸드피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 의발 의자와 같은 제어도 펌프체어에서 모터체어가 되면서 앉는 의자에서 베드형의 체어로 모양이 변화되었고 라이트도 등근 백열등에서 무영등으로 정사각형의 모형에서 백열등이 작은 원주형으로, 그리고 작고 속도가 높은 전구로 바뀌면서 라이트의 외형도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기계 제작소가 남대문 옆에서 이발 의자 공장을 하다가 치과의자에 흥미를 느끼고 군대에 납품한 것이 동기가 돼 치과 유니트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60년대초 원효로에서 한국치과기계산업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형태의 유니트를 생산하였습니다. 65년부터 안암동에서 금성제작소가 산뜻한 유니트를 생산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 시기에 이한치과산업에서도 유니트를 생산하였으나 별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희이 구과발에 주조 공장을 세워 삼전의 하청공장으로 발족하였으나 삼전과 기술제휴하여 74년 11월, 부평에 공장을 신축하여 본격적으로 유니트를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5년에는 중앙제작소에서 길전과 기술제휴하여 파라 유니트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지씨는 회상한다.

## 무의촌시대에서 치과의사 과잉배출 시대로

흘러간 시간 앞에서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을까만은 치과의사의 과잉 배출 또한 과거와 비교해 보면 상상치도 못할 일이다.

84년에 개원을 한 서울시 동작구의 홍성태 원장은 자신이 '막차'를 탔다는 표현을 쓴다. 우선 홍성태 원장이 졸업할 당시 치과대학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에 따라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한 경제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막차'라는 말이다. 또한 당시만 해도 개업할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둘러 개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막차'라는 표현을 90년대 개원한 한 원장도 사용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6년에 서울치대가 생긴 이래로 60년대에는 경희치대와 연세치대가 신설됐으며, 70년대에는 조선치대와 경북치대가, 80년대에는 전남치대, 전북치대, 원광치대, 부산치대, 단국치대가 신설됐으며 최근 90년대에 이르러는 강릉치대가 신설됨으로써 치과대학이 11개에 이르게 됐고 이들의 입학정원수는 모두 합해 7백60명이며 해마다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숫자는 1천여명에 이른다.

1945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과거 25년동안 2천여명도 되지 않던 치과의사의 수가 70년부터 98년에 이

르는 28년동안 1만6천여명에 다다른 것은 가히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치과의사도 양산체제로 들어간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 치과의사의 말은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을 적절하게 표현해 준다.

"과거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세인의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것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돈만 많이 버는 직업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돈도 못 버는 도둑놈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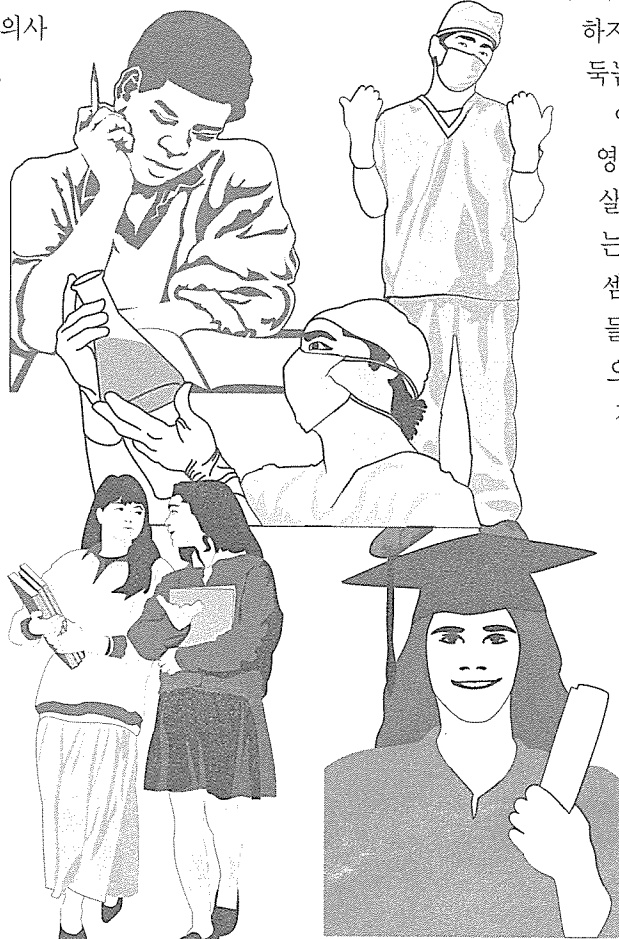
이제 치과의사는 마케팅과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더욱 변화를 요구하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다. 나이든 개원 치과의사들은 지난 과거를 흐뭇한 모습으로 반추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현재 치과의사로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개원 치과의사로 살게 될 그들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대학이 생겨나고 치과의사의 수도 늘면서 치과계의 원로인사들은 치과계의 단합이 예전같지 않다고 못내 아쉬워한다.

나이가 60, 또는 그 이상의 비교적 연세가 높은 치과계 인사를 만나면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치과계의 단합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이 자라온 시대적 상황이나 분위기와 젊은 세대의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서 어느 것이 옳다는 가부의 잣대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



과거 무의촌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1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760명이다.

들이 초기부터 이루어온 치과계이기에 애정의 눈길을 보내는 표현일 것이다.

과거에는 개업치과의원 중에 지금의 서울치대나 연세치대와 같이 지명도가 높은 개인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멀리 시골에서 유명한 의원을 찾아 서울에 까지 오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의 질이 평준화 돼 동네에 위치한 가까운 의원을 찾게 되며 특별한 경우 대학병원을 찾게 되는 것도 또한 변화된 세태의 하나다.

### 점점 외형 중시해, 인테리어 과잉투자 경향 있어

50년대 후반에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70년대에 서울시 치과 의사 회장을 역임하고 치협 부회장도 지낸 바 있는 서울시 종로구 C원장의 치과풍경을 잠시 살펴보자.

그의 치과는 검소하다 못해 조금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원장실은 더욱 감탄(?)스럽다. 조그맣고 허름한 책상, 천정 꼭대기에 있어야 할 형광등이 스탠드를 대신해 조그만 책상 옆에서 불을 밝히고 있고, 책상에 어울릴 조그만 의자 뒤에는 낡은 전기 스토브가 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면 그 풍경에 어울릴 만한 낡은 세면대가 놓여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값나가는 보이는 물품은 없는 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요즘 새로 생기는 치과에 들어가보면 눈이 미안할 정도다.

우선 환자를 위한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고, 고급 스러워보이는 의자, 게다가 대형 비디오, 최신 오디오까지 갖춰져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이익주원장은 자신도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환자들이 처음 왔을 때 보이는 것이니 그것이 환자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노량진에서 개원을 하고 또 이곳 올지로 이전하여 개원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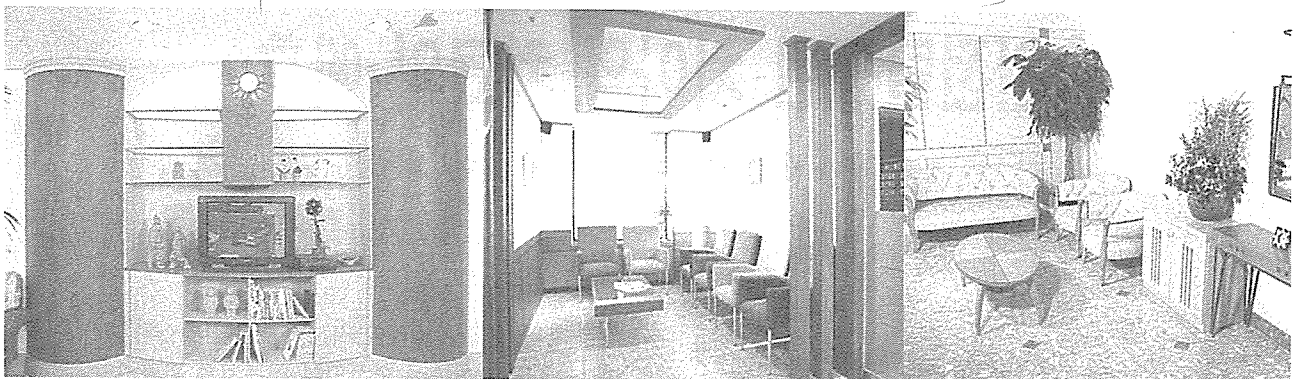
누구나 처음 개원을 하게 되면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돼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지만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과잉중복 투자로 내실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인이 경성치과전문대학교를 건립한 이후 98년 현재 11개의 치과대학이 세워졌다.





한국경제가 버블경제라고 비난받고 있는 지금 치과 곳곳에서도 거품이 빠져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국감의 의료보험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IMF 체제 이후 진료비를 채권압류당하는 의료기관이 올해 지난 5월말 현재 치과의원의 경우 모두 1백5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보진료비 채권압류는 금융대출과 사채를 제때 못갚아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리스료와 물품대금 등 의료기관의 무리한 시설투자와 환율상승에 따른 의료설비 리스비용 증가도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작구 흥성태 원장은 84년에 졸업한 본인의 전후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변화된 모습이 현격히 드러난다고 말한다.

“저보다 앞서 졸업한 74년 선배의 말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일대가 허허벌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94년에는 사당대로가 들어섰고, 빌딩이 들어서고 지하철이 곳곳에 생기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풍요로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도 과잉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치신험에서 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흥원장은 “이런 심리는 일정액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형성하기까지 한다”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과잉투자를 해도 가



치과의 인테리어는 과잉투자를 피하며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을 주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개원 치과의사는 충고한다.

능했는지 모르지만 외형경제가 IMF와 함께 벽에 부딪친 지금 이제는 내실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지광원 원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무한한 치과시장입니다. 이를 어떻게 치과로 끌어들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투자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저녁뉴스를 방송하는 한 지역민방에서는 뉴스를 내보내기전 2000년이 5백여일도 채 남지 않았음을 청취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으며 한 일간지에서도 2000년을 얼마큼 목전에 두고 있는지 항상 깨닫게 해준다.

이제 21세기가 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과계는 얼마나 21세기를 대비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크게는 전체 치과계를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